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 연구*

A Study on News Report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n the Web

권혜진(Hye-Jin Kwon)**

정동열(Dong-Youl Jeong)***

목 차

- | | |
|-------------------|--------------------|
| 1. 서론 | 3.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 1.2 연구 내용과 방법 | 3.2 정보요구 |
| 1.3 선행연구 | 3.3 선호 정보원 |
| 2. 연구의 설계 | 3.4 정보기술과 인터넷 이용 |
| 2.1 연구의 가설과 모형 | 3.5 만족도 |
| 2.2 데이터 수집 방법과 대상 | 4. 연구가설 검증 |
| 2.3 분석 방법 | 5.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의 전반적 현황을 조사하고, 정보요구, 선호 정보원, 정보기술과 인터넷 이용, 만족도의 특성을 형성하는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 신문 등 국내 신문에 소속된 205명의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 주요 목적은 간단한 사실 확인과 전반적인 배경 정보 수집이었으며, 기자직의 정보요구에 대한 특성은 직책과 매체종류, 인터넷친밀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성별, 연령, 취재분야, 경력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verall web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news reporters and analyze its correlation with parameters that characterize information needs, preferred sources of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et use and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of 205 news reporters working at domestic newspaper companies, including daily newspapers, magazines, and online newspapers was conducted. News reporters' primary purposes of seeking web information were to simply check facts and collect overall background information. Their information needs had close association with their position, media type, and familiarity with the internet, but with little association with gender, age, and reporting area.

키워드: 기자직, 웹, 정보탐색행위, 이용자 연구, 정보요구

News Reporters, Web,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User Studies, Information Needs

* 이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강사(kwonjuga@gmail.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dyjeong@ewha.ac.kr)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11년 4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5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325-344, 2011. [DOI:10.4275/KSLIS.2011.45.2.32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진 인터넷의 보급은 이용자의 정보탐색행위를 웹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전문직의 웹 정보탐색행위에 대한 이용자 연구도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에선 주로 학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속에서 본 연구는 비학술 집단 중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기자직을 대상으로 웹 정보탐색행위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사는 일상적으로 활발한 정보탐색행위가 요구되며, 이러한 정보탐색행위는 다양한 정보원의 탐색과 평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같은 기자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외국에서는 이용자 연구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어왔으나(Herron 1986; Nicholas & Martin 1993; Fabritius 1999; Davenport 등 2001; Anwar 등 2004, 2009) 국내에선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이 기자에게 매우 중요한 취재 수단이 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자들의 웹 정보탐색행위를 포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자직이 갖는 웹 정보탐색행위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직의 정보요구, 선호 정보원, 정보기술과 인터넷 활용, 만족도 등 전반적인 웹 정보탐색행위 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기자직의 정보요구, 선호 정보원, 정보기술과 인터넷 이용, 만족도의 특성을 형성하는

변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웹 정보탐색행위의 특성을 규명한다.

1.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웹 정보탐색행위에서 나타나는 정보요구, 선호 정보원, 정보기술과 인터넷 활용, 만족도 등을 망라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 연구 방법인 설문지 조사를 사용하였으며,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 특성을 형성하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5개의 연구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기자직의 범위를 국내 신문에 근무하는 기자 중에서 직접 기사 작성에 참여하는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전 취재기자 및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전 설문조사 대상은 각 신문의 여론조사 전문기자, 취재기자 중 박사과정 수료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해 설문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문제점을 수정하여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3 선행연구

해외 선행연구 중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기자직의 정보탐색행위를 포괄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는 Herron(1986)의 연구이다. Herron은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면대면 접촉이나 전화를 사용한 비공식적 구두 채널에 의한 개인적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제시하였다.

Nicholas와 Martin(1993)은 6년간에 걸쳐 영국 가디언지 기자들의 온라인 탐색 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그 후로도 기자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Chinn(2001)은 그의 연구에서 기자들의 정보요구가 정보수집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기술이 가져온 정보요구의 변화 수준은 '저널리스트의 인식과 저널리스트의 작업 환경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Harman(1986)은 기자들의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자적 환경에서 저널리스트의 정보 행태에 관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연구이다. 이후 Vreekamp(1995)는 편집국에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분석적 배경 정보 수집이나 기사 구성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사실 확인에 사용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기반하여 수행된 이용자 연구도 다수 배출되었다(Anwar 등 2004, 2009; Joseph 1993; Vreekamp 1995). Anwar 등은 쿠웨이트(2004)와 파키스탄(2009) 저널리스트들의 정보원 선호도, 만족도, 정보원 사용 방법, 전자정보원의 사용량, 기자직의 정보 활용 기술, 기자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애물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자들의 비공식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는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는데 Joseph(1993)은 그의 연구에서 인도 저널리스트들이 비공식 정보원과 개인 콜렉션, 저널리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Vreekamp(1995) 역시 서유럽과 다른 카리브 해의 커뮤니티를 연구한 결과 비공식정보원은 무료로 입수하기

쉬우며 양쪽 커뮤니티에 치우치지 않은 주요 정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자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Ward 등(1988)은 뉴스보도에 있어서 전자도서관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Campbell(1997)은 응답자 중 다수가 도서관 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저널리스트의 정보기술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Fabritius(1999)는 신문 기자들의 기사 작성 과정에서 전자 정보원의 역할과 정보기술 활용, 디지털 시스템이 기자직의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Ward와 Hansen(1991)은 미국 10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이 저널리스트와 사서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Poteet(2000)은 영국과 미국 신문사 두 곳을 대상으로 저널리스트들의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와 온라인에서 확보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 분석하였으며, Luge(1999)의 연구에선 기사 내용의 주요 정보원 조사에서 인터넷이 라디오, TV, 출판물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인적 정보원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Davenport 등(2001)은 미시간 주의 일간지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활용을 평가하였으며, Garrison(2001)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신문사의 온라인 정보 이용에 대해 일요판 판매부수가 2만부 이상인 일간신문 약 500개를 대상으로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의 주요 선행연구들은 기자직의 정보탐색행위 연구에 있어서

주로 정보요구, 선호 정보원, 정보기술과 인터넷 이용도, 정보탐색과정의 장애물 등에 대해 실증적이고 풍부한 연구 성과들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 개별 직업 또는 학문 분야의 웹 정보탐색행위를 다룬 연구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학술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한 박일종과 백수연(2001)의 연구, 이해영과 이수영(2001)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박일종과 백수연(2001)의 연구에 따르면 전자공학 분야 대학원생들은 연구과제 수행과 학위논문 준비를 위해 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자료는 발행된 지 평균 2~3년 이내의 최신 학위 논문과 학술저널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보자료의 수집을 위해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영과 이수영(2001)은 이공계 연구자 28명을 심층면담 한 결과, 연구 참가자들이 취미 여행 등 개인적 관심사를 위한 정보검색에는 검색엔진을 많이 활용하지만 연구를 위한 정보 검색에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학회, 연구소, 대학 사이트 등을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기자직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로는 컴퓨터를 활용한 취재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자직의 인터넷 활용을 분석한 권혜진(1999)의 연구,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의 정보추구행태를 심층면담 방법으로 연구한 장선화(2005)의 연구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언론재단이 2년마다 수행하는 언론인 의식조사인 '한국의 언론인'에서도 일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외에는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설계

2.1 연구의 가설과 모형

본 연구는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기자직의 정보요구와 선호 정보원, 정보기술과 인터넷 활용, 웹 정보탐색 만족도 등의 특성 분석이 근간을 이룬다고 보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보요구의 특성, 선호 정보원의 특성, 정보기술 및 인터넷 활용 특성, 웹 정보탐색 만족도 등 4개의 종속변인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 경력, 직책, 매체종류, 취재분야, 인터넷친밀도 등 7개 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립변인 중 개인의 인터넷친밀도 변인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관련된 하위 6개의 설문 항목 응답 결과를 합하여 새로운 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이 독립변인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자직의 정보요구에 대한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기자직의 선호 정보원에 대한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 기자직의 정보기술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기자직의 선호 정보원은 정보요구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5: 기자직의 선호 정보원에 대한 특성은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2 데이터 수집 방법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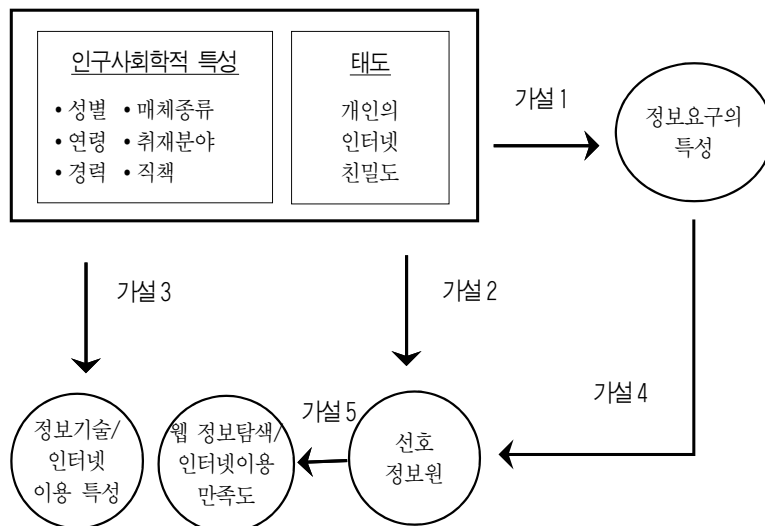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09년 8월 31일에서 9월 1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시행되었다. 설문지의 배포와 응답 결과 수집은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인 월드서베이(www.wsurvey.net)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진행되었다. 설문지의 배포는 국내 주요 미디어그룹인 D일보와 그 계열사를 중심으로 기자 377명에게 e-메일 형태로 배포하였으며, 매체 종류는 종합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 신문 등 24개 매체

가 포함되었다.

기자직의 범위는 기사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편집국 취재기자직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논설위원은 조직 구성 상 편집국과 별도로 근무하나 취재기자가 순환 배치되어 매일 사설과 컬럼을 집필하는 등 기사 작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2.3 분석 방법

설문조사의 분석에 사용된 원 자료는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응답 정보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xls) 형태로 다운로드하였다. 이 엑셀 파일을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 12.0 for Windows' 한글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검증 방법으로는 카이제곱 검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 분석, 단순회귀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1>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 연구 모형

설문지의 구성은 정보요구, 선호 정보원, 정보기술 및 인터넷 이용, 만족도,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 5개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대부분 선다형 질문형식인 폐쇄식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응답자가 해당 문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거나 빈도수가 적으면 1점, 긍정적이거나 빈도수가 많으면 5점 등 점수를 부여한 후 평균을 비교하였다.

3.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

3.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배포한 설문 377부 중에서 205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회수율은 54.4%이다. 응답자 205명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구 분	빈도수	백분율(%)
성별	남자	141	68.8
	여자	64	31.2
연령	20대	51	24.9
	30대	109	53.2
	40대	42	20.5
	50대 이상	3	1.5
	경력	5년 이하	71
	6년~10년	64	31.2
	11년~15년	37	18.0
	16년~20년	33	11.7
	21년 이상	9	4.4
직책	데스크	22	10.7
	논설위원	5	2.4
	평기자	178	86.8

	구 분	빈도수	백분율(%)
매체	일간지	172	83.9
	주간지	13	6.3
	월간지	13	6.3
	인터넷신문	4	2.0
	기타	3	1.5
취재 분야	정치	19	9.3
	산업/경제	48	23.4
	국제	14	6.8
	사회	44	21.5
	교육/복지	4	2.0
	문화	14	6.8
	스포츠/레저	16	7.8
	엔터테인먼트	7	3.4
	인터넷뉴스	12	5.9
	논설위원실	5	2.4
	기타	22	10.7
	합계	205	100.0

3.2 정보요구

기자들이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웹 정보탐색을 할 때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표 2〉 참조). 1순위에 가중치 2점을 부여하고 2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웹 정보탐색 목적은 간단한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이 33.7%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배경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도 33.3%를 차지하였으며, 아이템 발굴이나 업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목적은 27.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사 아이디어 수집단계부터 작성단계에 이르기까지 웹 정보탐색이 취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사 보도 후 댓글 등 본인이 쓴 기사 내용과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은 1.8%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전문가나 취재원 등 인적 자원을 찾기 위한 목적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자들이 인적 자원을 찾기 위해서 웹 정보탐색보다는 주로 대인 취재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웹 정보탐색 목적

구 분	점수(%)
간단한 사실 확인(fact checking)을 위해	207 (33.7)
전반적인 배경정보 수집을 위해	205 (33.3)
아이템 발굴이나 업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166 (27.0)
전문가, 취재원 등 인적 자원을 찾기 위해	26 (4.2)
기사 보도 후 댓글 등 본인이 쓴 기사 내용과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11 (1.8)
합 계	615 (100.0)

기자들이 평소 웹 정보탐색 시 주로 어떤 탐색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표 3〉 참조).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3%는 주제를 정해서 탐색하며, 간단하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보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클릭 위주와 검색 위주의 탐색전략으로 구분해 보면, 검색 위주의 탐색전략이 82.0%, 클릭 위주의 탐색전략이 18.0%를 차지해 기자들은 브라우저보다 검색 위주의 탐색전략을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자들이 정보탐색을 할 때 주로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탐색 주제가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자들이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거나

〈표 3〉 웹 정보탐색전략

구 분	빈도수(%)
주제를 정해서 탐색하며, 간단하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보는 편이다.	142 (69.3)
주제를 정해서 탐색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비교적 상세하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보는 편이다.	26 (12.7)
특별히 주제를 정하지 않고 탐색하며, 키워드 검색보다는 클릭 위주로 웹을 훑어보는 편이다.	23 (11.2)
주제를 정해서 탐색하며, 키워드 검색보다는 클릭 위주로 웹을 훑어보는 편이다.	14 (6.8)
합 계	205 (100.0)

해결 방법을 얻는 곳이 어디인지 2개를 선택해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표 4〉 참조). 조사 결과 1순위 응답의 분포를 보면 웹 정보탐색이 70.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순위에 가중치 2점을 부여하고 2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역시 인터넷정보 탐색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는 현재의 취재 환경에서 웹 정보탐색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웹 정보탐색에 대한 선호도는 이미 웹 정보탐색이 일상적인 취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정보 필요 시 1차적 해결방법

구 분	점수	%
웹 정보탐색	333	54.2
외부인맥 또는 전문가 취재	184	29.9
사내DB 또는 자료실	51	8.3
사내동료/선후배	44	7.2
기타	3	0.5
합 계	615	100.0

웹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해 취재분야별로 기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표 5〉 참조). 국제 분야의 경우 응답자 중 51.7%가 매우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으며,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논설/칼럼 분야의 경우 응답자 중 4.9%는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였으며 정치부 역시 3.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취재분야별로 평균값을 살펴보면, 국제가 4.36으로 가장 높았고, 엔터테인먼트 4.24, 스포츠/레저 4.01, 문화 3.9, 산업/경제 3.86, 사회/전국 3.72, 교육/복지, 3.62, 정치 3.23, 논설/칼럼 3.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부의 경우 취재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인터넷 연에 기사가 급증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취재분야의 유형을 인터넷의존도에 따라 상중하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면 인터넷 뉴스와 국제, 엔터테인먼트가 상위집단, 스포츠/레저, 문화, 산업/경제가 중위집단, 논설/칼럼, 정치, 교육/복지, 사회/전국이 하위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후

〈표 5〉 웹 정보원 의존도 변화에 대한 인식

취재분야	평균 (n=205)	표준 편차
정치	3.23	0.90
산업/경제	3.86	0.72
국제	4.36	0.79
사회/전국	3.72	0.75
교육/복지	3.62	0.71
문화	3.90	0.79
스포츠/레저	4.01	0.78
엔터테인먼트	4.24	0.83
논설/칼럼	3.12	0.94

연구가설 검증에서는 인터넷의존도 상위집단을 인터넷취재 의존형, 중위집단을 혼합취재형, 하위집단을 대인취재 의존형으로 취재분야를 묶어서 분석하였다.

3.3 선호 정보원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자들의 웹 정보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표 6〉 참조). 조사 결과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54.1%,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25.4%를 차지하여 전체 응답자 중 79.5%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종류나 취재분야 등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취재기자가 웹 정보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웹 정보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구 분	빈도수	%
전혀 중요하지 않음	0	0.0
중요하지 않음	3	1.5
보통임	39	19.0
중요함	111	54.1
매우 중요함	52	25.4
합 계	205	100.0

기자들이 기사 아이디어 수집 단계에서 설문 문항의 보기에서 제시한 각각의 정보원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조사하였다(〈표 7〉 참조). 각각의 정보원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출입처 취재원/인맥을 통해 얻는 비공식 정보가 4.10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외부 전문가 인터뷰가 3.89, 연합뉴스 등 통신사 기사가 3.84, 본인의

적극적인 웹 정보탐색이 3.74,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e-메일 보도자료는 3.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내 DB/자료실은 2.87로 나타나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여주었다. 보기에서 열거한 정보원을 인적 정보원과 비인적 정보원, 내부 정보원과 외부 정보원으로 구분해 보면 외부의 인적 정보원이 1, 2위를 모두 차지하여 취재기자들의 외부 인적 정보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7〉 아이디어 수집단계의 선호 정보원

구 분	평균 (n=205)	표준 편차
출입처 취재원/인맥을 통해 얻는 비공식 정보	4.10	0.77
외부 전문가 인터뷰	3.89	0.77
연합뉴스 등 통신사 기사	3.84	0.73
본인의 적극적인 웹 정보탐색	3.74	0.78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e-메일 보도 자료	3.60	0.93
타 언론사나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	3.56	0.73
본인의 지식이나 소장 자료	3.52	0.72
내부 동료 또는 선후배와의 토론/정보교환	3.38	0.76
지식인, 블로그, 커뮤니티 등의 UCC 정보	2.92	0.84
사내 DB/자료실	2.87	0.90

기자들이 기사 작성 단계에서 설문 문항의 보기에서 제시한 각각의 정보원을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조사하였다(〈표 8〉 참조). 각각의 정보원에 대해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출입처 취재원/인맥을 통해 얻는 비공식 정보, 연합뉴스 등 통신사 기사, 외부 전문가 인터뷰가 각각 3.97로 가장 선호하는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지식인/블로그/커뮤니티 등의 UCC 정보는 2.79로 기사 작성 단계의 정보원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표 8〉 기사 작성 단계의 선호 정보원

구분	평균 (n=205)	표준 편차
출입처 취재원/인맥을 통해 얻는 비공식 정보	3.97	0.83
연합뉴스 등 통신사 기사	3.97	0.72
외부 전문가 인터뷰	3.97	0.80
본인의 적극적인 웹 정보탐색	3.71	0.75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e-메일 보도 자료	3.69	0.95
타 언론사나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	3.55	0.84
본인의 지식이나 소장 자료	3.48	0.74
내부 동료 또는 선후배와의 토론/정보교환	3.29	0.75
사내 DB/자료실	3.01	0.97
지식인, 블로그, 커뮤니티 등의 UCC 정보	2.79	0.80

기자들이 정보탐색 시 웹 사이트의 평가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중요시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표 9〉 참조).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웹 사이트 평가 기준은 정보의 정확성(4.63)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의 최신성(4.22), 정보제공자의 권위(4.17), 정보입수의 편의성(4.00), 정보의 접근성/속도(3.99), 정보입수의 신속성(3.91)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의 커버리지/포괄성(3.62)이나 정보입수비용(3.54), 정보제공자의 목적성(3.45), 웹사이트의 쌍방향성(2.85)은 전체 평균인 3.83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웹 사이트 평가 기준

구분	평균 (n=205)	표준 편차
정보의정확성	4.63	0.54
정보의최신성	4.22	0.64
정보제공자의권위	4.17	0.68
정보입수의편의성	4.00	0.70
정보의접근성/속도	3.99	0.67
정보입수의신속성	3.91	0.71
주제의커버리지/포괄성	3.62	0.74
정보입수비용	3.54	0.72
정보제공자의목적성	3.45	0.83
웹사이트의쟁방향성	2.85	0.77

3.4 정보기술과 인터넷 이용

응답자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9.5%가 하루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10 참조〉).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 이용자를 모두 합하면 53.7%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하루 1시간 이상 이용자를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93.2%를 차지하였다. 이는 인터넷이 이미 기자들의 일상적인 취재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10〉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구분	빈도수	%
하루 5시간 이상	57	27.8
하루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53	25.9
하루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81	39.5
하루 10분 이상 1시간 미만	13	6.3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	0.5
합계	205	100.0

기자들의 인터넷 직접 참여도를 살펴보기 위

해 인터넷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제작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표 11〉 참조). 조사 결과, 복수응답을 포함한 전체 326건 중에서 블로그 운영이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개인 홈페이지 운영은 20.9%, 커뮤니티 운영이 19.0%,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마이크로블로그 운영이 4.9%, 동영상 UCC 제작이 4.3%를 차지하였다. e-메일 뉴스레터나 구글그룹스 등 e-메일 토론그룹 운영은 2.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운영 또는 제작 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19.3%를 차지하였다.

〈표 11〉 인터넷 직접 참여도

구분	빈도	%
블로그 운영	96	29.4
개인 홈페이지 운영	68	20.9
해당사항 없음	63	19.3
커뮤니티 운영	62	19.0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마이크로블로그 운영	16	4.9
동영상 UCC 제작	14	4.3
e-메일 뉴스레터나 구글그룹스 등 e-메일 토론그룹 운영	7	2.1
합계	326	100.0

기자들이 웹 정보탐색 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1, 2순위를 나누어 조사하였다(〈표 12〉 참조). 1순위에 가중치 2점을 부여하고 2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점수를 비교한 결과, '홍보성 자료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기자들이 웹 정보탐색 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속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신생 뉴스

매체가 급증하면서 정보의 최신성 문제는 줄어든 반면, 비슷비슷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므로써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웹 정보탐색 시 부딪히는 문제

구분	점수	%
홍보성 자료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197	32.0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138	22.4
자신의 정보탐색 기술이 부족해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어렵다	112	18.2
중요한 자료는 회원제인 경우가 많아서 정보 접근이 어렵다	87	14.2
최신 정보가 별로 없다	45	7.3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느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	32	5.2
기타	4	0.7
합 계	615	100.0

기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표 13〉 참조).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새로운 디지털 장비나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가 3.60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인터넷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시간을 내서 참가하는 편이다'는 2.6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평소 취재 시간이 부족한 기자의 일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변인 중 개인의 인터넷친밀도는 아래 6개의 응답 결과를 합하여 새로운 변인을 생성한 것이다.

〈표 13〉 인터넷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새로운 디지털 장비나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60	0.78
사용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업그레이드하는 편이다	3.23	0.89
검색엔진을 사용할 때 고급검색 기능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19	0.89
동료들보다 인터넷에 익숙한 편이다	3.17	0.81
인터넷이나 IT 관련 기사를 챙겨 읽는 편이다	3.14	0.87
인터넷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시간을 내서 참가하는 편이다	2.62	0.82

3.5 만족도

기자의 웹 정보탐색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웹 정보탐색 관련 5개 항목과 인터넷 이용 관련 3개 항목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표 14〉 참조).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탐색전략에 대한 만족도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e-메일에 대한 만족도는 3.28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는 스팸메일이 과도하게 들어와 메일을 삭제하는데 많은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 웹 정보탐색 및 인터넷 이용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나는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웹 정보탐색 시 내가 선택한 탐색전략에 만족하는 편이다	3.49	0.67
나는 특정 목적으로 웹 정보탐색 시 대체로 탐색 결과에 만족하는 편이다	3.46	0.62

구분	평균	표준 편차
나는 기사 작성 단계에서 내가 선택한 정보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3.35	0.58
나는 기사 아이디어 수집 단계에서 내가 선택한 정보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3.32	0.67
나는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방문하는 개별 웹사이트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3.28	0.66
내가 이용하고 있는 e-메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3.28	0.84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접속 속도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3.47	0.74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3.38	0.67

4. 연구가설 검증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인은 정보요구의 특성, 선호 정보원의 특성, 정보기술 및 인터넷 활용 특성, 웹 정보탐색 만족도의 4개이며, 독립변인은 성별, 연령, 경력, 직책, 매체종류, 취재분야, 개인의 인터넷친밀도 등 7개이다.

독립변인 중 개인의 인터넷친밀도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관련된 하위 6개의 설문 항목 응답 결과를 더하여 새로운 변인을 생성하였다. 새로운 변인인 인터넷친밀도에 대한 신뢰성 계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0.84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이 변인의 평균값은 18.9, 최소값은 7, 최대값은 30이며 값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대해 친숙하고 관심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평균값에 기준하여 인터넷친밀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인 중에서 웹 정보

탐색행위 만족도는 설문 27번 문항에서 하위 1번에서 5번까지 5개 설문 항목의 응답 결과를 더하여 새로운 종속변인을 구성하였다. 웹 정보탐색행위의 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계수 크론바하 알파값은 0.84로 역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가설 1: 기자직의 정보요구에 대한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카이승 분석(chi-square test)을 수행하였다(〈표 15〉 참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자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특성은 직책과 매체종류, 인터넷친밀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성별, 연령, 취재분야, 경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기자직의 선호 정보원에 대한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6〉 참조).

분석 결과, 웹 정보원 선호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 취재분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이를 제외한 성별, 연령, 직책, 매체종류, 경력, 인터넷친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

〈표 15〉 정보요구의 특성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의 관계

구분		아이템 발굴/ 업무 아이디어 수집	전문가/취재원 등 인적 자원 탐색	간단한 사실 확인	전반적인 배경정보 수집	χ^2	유의도
성별	남자	41	5	47	48	4.23	0.237
	여자	23	0	16	25		
연령	20대	14	1	15	21	7.12	0.624
	30대	32	4	38	35		
	40대	16	0	10	16		
	50대 이상	2	0	0	1		
직책	간부급 데스크	13	1	3	5	14.72	0.023*
	논설위원	1	0	0	4		
	평기자	50	4	60	64		
매체종류	일간지	49	3	58	62	23.32	0.025*
	주간지	4	1	2	6		
	월간지	7	0	2	4		
	인터넷신문	2	0	1	1		
	기타	2	1	0	0		
취재분야	대인취재의존형	27	1	29	37	3.37	0.761
	혼합취재형	12	1	10	8		
	인터넷취재의존형	25	3	24	28		
경력	5년 이하	22	1	18	30	13.09	0.362
	6년 10년	18	1	23	22		
	11년 15년	12	3	14	8		
	16년 20년	8	0	7	9		
	21년 이상	4	0	1	4		
인터넷 친밀도	상위집단	19	1	34	3	8.695	0.034*
	하위집단	45	4	29	42		
사례 수 합계		64	5	63	73	205(100.0%)	

* $P < 0.05$

〈표 16〉 웹 정보원 선호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의 관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도
성별	남자	141	4.00	0.70	-1.02	0.308
	여자	64	4.10	0.71		
연령	20대	51	4.11	0.73	1.26	0.287
	30대	109	4.00	0.67		
	40대	42	3.95	0.76		
	50대 이상	3	4.66	0.57		
직책	간부급 데스크	22	3.82	0.80	1.743	0.178
	논설위원	5	4.40	0.55		
	평기자	178	4.05	0.70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도
매체종류	일간지	172	4.06	0.69	0.94	0.439
	주간지	13	3.92	0.86		
	월간지	13	3.69	0.85		
	인터넷신문	4	4.00	0.00		
	기타	3	4.00	0.00		
취재분야	대인취재의존형	94	4.17	0.63	7.65	0.001*
	혼합취재형	31	3.61	0.71		
	인터넷취재의존형	80	4.03	0.73		
경력	5년 미만	71	4.08	0.75	0.99	0.412
	5년 이상 10년 미만	64	4.06	0.61		
	10년 이상 15년 미만	37	4.00	0.66		
	15년 이상 20년 미만	24	3.79	0.88		
	20년 이상	9	4.22	0.66		
인터넷 친밀도	상위집단	85	4.08	0.73	0.669	0.414
	하위집단	120	4.00	0.70		

* $P < 0.05$

재분야는 웹 정보원 선호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다른 독립변인은 그다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가설 3: 기자직의 정보기술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특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7〉 참조).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연령, 경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 매체종류, 취재분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설 4: 기자직의 선호 정보원은 정보요구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4를 검증하기 위해 정보요구, 수집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작성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개별 웹 사이트/정보원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해 분석하였다(〈표 18〉 참조).

〈표 17〉 정보기술/인터넷 활용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간의 관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도
성별	남자	141	2.77	0.57	-0.94	0.346
	여자	64	2.85	0.53		
연령	20대	51	2.91	0.54	3.76	0.012*
	30대	109	2.84	0.53		
	40대	42	2.55	0.61		
	50대 이상	3	2.66	0.58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도
직책	간부급 데스크	22	2.59	0.56	2.783	0.064
	논설위원	5	2.46	0.47		
	평기자	178	2.83	0.56		
매체종류	일간지	172	2.78	0.57	1.61	0.172
	주간지	13	2.74	0.39		
	월간지	13	2.77	0.50		
	인터넷신문	4	3.20	0.37		
	기타	3	3.46	0.40		
취재분야	대인취재의존형	94	2.74	0.59	1.72	0.181
	혼합취재형	31	2.74	0.54		
	인터넷취재의존형	80	2.89	0.52		
경력	5년 미만	71	2.89	0.54	5.14	0.001*
	5년 이상 10년 미만	64	2.94	0.51		
	10년 이상 15년 미만	37	2.61	0.57		
	15년 이상 20년 미만	24	2.62	0.57		
	20년 이상	9	2.32	0.58		
인터넷 친밀도	상위집단	85	3.02	0.53	0.020	0.888
	하위집단	120	2.64	0.54		

* $P < 0.05$

〈표 18〉 정보요구와 선호 정보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정보요구	수집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작성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개별 웹 사이트/정보원
정보요구	1			
수집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0.28*	1		
작성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0.34*	0.71*	1	
개별 웹 사이트/정보원	0.20*	0.43*	0.30*	1

* $P < 0.05$

정보요구는 수집단계에서의 정보원, 작성단계에서의 정보원, 개별 웹 사이트/정보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수집단계에서의 정보원 역시 작성단계에서의 정보원, 개별 웹 사이트/정보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작성단계에서의 정보원의 경우도 개별 웹 사이트/정보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보요구와 선호 정보원 간에는 유의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5: 기자직의 선호 정보원에 대한 특성은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5를 검증하기 위해 선호 정보원의 특성을 아이디어 수집 단계, 기사 작성 단계로 나누어 웹 정보탐색행위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

〈표 19〉 아이디어 수집단계의 웹 정보원 활용과 인터넷 만족도 간 관계

구분		비표준화 된 회귀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t	유의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웹 정보탐색행위 만족도	상수항	1.81	0.29		6.16	0.000*
	아이디어 수집단계의 웹 정보원 활용	0.43	0.08	0.35	5.34	0.000*

주) 사례수=205, R-square=0.123, Adj. R-square=0.119, F=28.595, *: P<0.05

〈표 20〉 기사 작성 단계의 웹 정보원 활용과 인터넷 만족도 간 관계

구분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t	유의도
종속변인	독립변인					
정보탐색행위 및 인터넷 이용의 만족도	상수항	2.40	0.24		9.67	0.000*
	기사 작성단계의 웹 정보원 활용	0.27	0.07	0.26	3.94	0.000*

주) 사례수=205, R-square=0.071, Adj. R-square=0.066, F=15.526, *: P<0.05

석하였다.

먼저, 아이디어 수집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활용과 인터넷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9〉 참조). 분석결과, 아이디어 수집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활용은 웹 정보탐색행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수집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활용을 높게 인식할수록 정보탐색행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 작성 단계의 웹 정보원 활용과 인터넷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작성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활용은 웹 정보탐색행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성단계에서의 웹 정보원 활용을 높게 인식할수록 웹 정보탐색행위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본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7.1%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5. 결론

본 연구는 비학술 전문 집단인 기자직을 대상으로 웹 정보탐색행위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205명의 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요구, 선호 정보원, 정보기술과 인터넷 활용, 만족도 등 정보탐색행위 관련한 포괄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자직의 주요한 웹 정보탐색목적은 간단한 사실 확인 목적이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인 배경 정보 수집 목적 또한 많았다. 웹 정보탐색 전략은 주제를 정해서 탐색하며, 간단하

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보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였고, 브라우징보다는 검색 위주의 탐색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정보원의 존도에 대한 인식은 취재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제,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 논설/칼럼 분야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웹 정보원의 중요성에 대해 79.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기자직의 취재과정에서 웹 정보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보원 선호도의 경우 기사 아이디어 수집 단계와 기사 작성단계 모두 출입처 취재원/인맥을 통해 얻는 비공식 정보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웹 정보탐색 시 웹 사이트의 평가 기준은 정보의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설문 응답자의 93.2%가 하루 1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기자직의 취재 활동에서 일상적인 취재 도구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었다. 인터넷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제작한 경험은 블로그 운영이 가장 많았으며, 웹 정보탐색 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였다.

넷째,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탐색전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E-메일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다섯째, 5개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기자직의 정보요구에 대한 특성은 직책과 매체종류, 인터넷친밀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자직의 선호 정보원에 대한 특성은 취재분야와 밀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직의 정보기술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특성은 연령, 경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다른 독립변인과는 관련성이 낮았다. 기자직의 정보요구는 선호 정보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기사 아이디어 수집단계와 기사 작성단계에서의 정보원 활용을 높게 인식할수록 웹 정보탐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터넷이 전문직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 수단이 된 환경 변화 속에서 비학술 전문 집단인 기자직의 웹 정보탐색행위에 관한 망라적이고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 따르면 기자들은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 때 70.2%가 웹 정보탐색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이는 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현장'에서 '웹'으로 상당부분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처럼 인터넷이 중요한 취재 수단이 된 상황에서 기자들의 웹 정보탐색 능력은 곧바로 취재 능력으로 직결될 수 있으며, 기자직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대학 학과에서는 저널리즘 교육에 정보 검색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자직을 위한 지식정보시스템이나 취재정보원 사이트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저널리즘 교육의 커리큘럼 연구에도 유용성을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신문 분야의 취재기자직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앞으로 신문, 방송 등 언론사의 다양한 직군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권혜진. 1999. 『인터넷을 활용한 취재보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언론정보학과.
- [2] 박일중, 백수연. 2001. 전자공학전공 대학원생들의 학술정보 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31-58.
- [3] 이해영, 이수영. 2001. 인터넷 정보의 탐색, 평가 및 활용: 대학 이공계 연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8(4): 163-181.
- [4] 장선화. 2005.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의 정보추구행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165-182.
- [5] 한국언론재단 편집부. 2007. 『한국의 언론인 2007』. 서울: 한국언론재단.
- [6] Abdulla, Abdulnasir Taleb Mansoor. 2006. *Technology and Internet-Related Information Behaviors of Print Journalists in Kuwait*. Ph.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 [7] Anwar, M. A., & Asghar, M. 2009.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Pakistani newspaper journalists." *Pakist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0(1): 57-79.
- [8] Anwar, M. A., Al-Ansari, H., & Abdullah, A. 2004.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of Kuwaiti journalists." *Libri*, 54(1): 228-236.
- [9] Campbell, F. 1997. "Journalistic construction of news: Information gathering." *New Library World*, 98(1133): 60-63.
- [10] Chinn, L. A. 2001.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Needs of Journalists in Context*. MSLS diss., University of NC at Chapel Hill.
- [11] Davenport, L., Fico, F., & Detwiler, M. 2001. "How Michigan dailies use computers to gather new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2(3): 44-57.
- [12] Edem, U. S. 1993.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patterns of journalists in selected Nigerian towns."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 1-14.
- [13] Fabritius, H. 1999. *Triangulation as a Multi-Perspective Strategy in a Qualitative Study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ur of Journalists: Exploring the Contexts of Information Behaviour*. London, UK: Taylor Graham Publishing.
- [14] Garrison, B. 2001. "Online information use in newsrooms: A longitudinal diffusion study." *Journalism: Theory, Practice, and Criticism*, 2(2): 221-239.
- [15] Harman, J. 1986. "Reuters: A survey of End-LTser searching." *Aslib Proceedings*, 38(1): 35-42.

- [16] Herron, N. L. 1986.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the Perceptions of Information Channels by Journalists of Two Daily Metropolitan Newspapers*. Ph.D. diss.,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Pittsburgh.
- [17] Joseph, R. 1993. "How Indian journalists use libraries?" *Information Development*, 9(1): 70-75.
- [18] Luge, T. 1999. *Usage Patterns and Information Needs of Journalists on the Internet*. M.S. thesis, University of Munich, Munich.
- [19] Nicholas, D., & Martin, H. 1993. "End-user coming of age? Six years of end-user searching at the Guardian." *Online Review*, 17(2): 83-89.
- [20] Nicholas, D., Martin, H., Williams, P., & Cole, P. 2000.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information seeking in the media." *Aslib Proceedings*, 52(3): 98-114.
- [21] Poteet, A. R. 2000. *Newspaper Journalist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with Online Information Sources*, M.S. thesis,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22] Vreekamp, H. 1995. "The information seeking attitudes of non-metropolitan journalists: A qualitative study of two communities and their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The Electronic Library*, 13(1): 43-51.
- [23] Ward, J., & Hansen, K. A. 1991. "Journalist and librarian role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newsmaking." *Journalism Quarterly*, 68(3): 491-498.
- [24] Ward, J., Hansen, K. A., & Mcleod, D. M. 1988. "Effects of the electronic library on news reporting protocols." *Journalism Quarterly*, 64(4): 714-72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on, Hye-Jin. 1999. *A Study on Internet-Assisted Reporting*. M.A. thesis,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 [2] Park, Il-Jong, & Back, Su-Yeon. 2001. "The analysis of the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electronic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3): 31-58.
- [3] Rieh, Hae-Young, & Rieh, Soo Young. 2001. "Information seeking, evaluation, and use on the internet: A case study of science and engineering schola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8(4): 163-181.

- [4] Jang, Seon-Hwa. 2005. "A study on newspaper reporters'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3): 165-182.
- [5] Korea Press Foundation. 2007. *Journalists of Korea 2007*. Seoul: Korea Press Foundation.